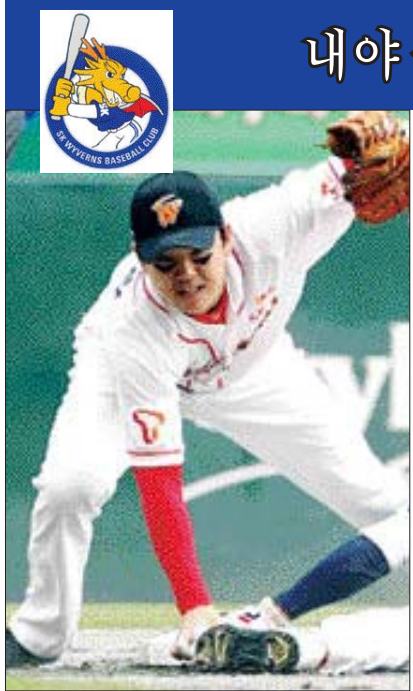


세계정당나라의 원정대인 광주광역시 상선호 초대합니다.

임핑 나이너스터 컨트리 클럽

- 광주 - 동광명IC 구간 광복 동원드 관동
- (명동동원명IC 영수순 코르도 개시)
- 인천시 9월 이후 출발요금정선제 실시
- 예약 : www.hpdyashy.co.kr 0801 320-7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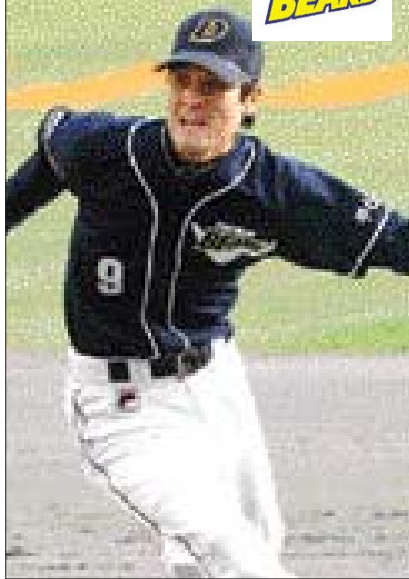


내야 수비, 한국시리즈 우승 '열쇠'



◀ 나주환·이대수 ▶
(SK) (두산)

주전 유격수
자존심 대결



양팀 한번씩 실책으로 희비교차

남은 경기 철벽 수비 최대 변수

“2연패”와 “명예 회복”을 목표로 가을잔치에 나선 SK 와이번스와 두산 베어스의 내야 대결이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 시즌 한국시리즈에서 맞붙은 SK와 두산은 한치 양보없는 경기를 펼치고 있다.

2007시즌 첫 우승의 감격을 누렸던 SK는 올 시즌 정규리그 83승의 기세를 몰아 2연패를 노리고 있고, 두산은 지난해 2연승 후 4연패로 굴복한 설움을 우승으로 풀겠다는 각오다.

두 팀 모두 탄탄한 불펜과 짜임새 있는 타선을 자랑하고 있어 최후의 결과는 예측불허.

작은 실수에 두 팀의 표정이 엇갈릴 수 있는 대결인 만큼 내야의 움직임이 경기 흐름을 좌우할 전망이다.

두 팀은 모두 한 번씩 수비에 웃고 울었다. 26일 문학구장에서 열린 1차전. SK가 1-0으로 앞서가던 5회초 두산 선두타자 채상병의 직선타구가 3루수 최정의 글러브에 들어갔다 나왔다.

기록상으로는 내야안타가 됐지만 SK 입장에서는 아쉬운 수비였다.

두산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종욱의 적시타로 1-1로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

내야 움직임에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자존심 경쟁을 벌이고 있는 유격수 나주환(SK)과 이대수(두산)의 대결도 흥미를 더한다.

나주환과 이대수는 지난해 4월 마트레이로 유니폼을 바꿔입은 후 친정팀을 상대로 한국시리즈에 나섰다.

지난해에는 나주환이 웃었다. 이대수는 2차전 결승타의 주인공으로 팀 2연승을 견인했지만 3차전에서 1이닝에 무려 3개의 실책으로 1-9 패배를 자초,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 두산은 3차전 패배 이후 내리 4연패를 당하며 가을잔치 들러리로 전락했었다.

이대수에게는 이번 한국시리즈가 자존심 회복을 위한 절호의 기회다.

나주환은 0.243의 타율을 기록하는데 그친 정규시즌의 아쉬움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라 두 유격수의 자존심 대결이 뜨겁다.

“철벽내야가 우승의 관건으로 떠오르면서 자연히 수비의 꽃 유격수의 역할도 막중해지고 있다.

자존심을 건 내야의 치열한 경쟁 속에 가을잔치가 무르익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부산서 세계 여자 요트대회 29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앞바다에서 열린 '2008부산세계여자매치레이스 요트대회' 첫날 경기에서 화려한 돛을 펼친 요트들이 물살을 가르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세계 상위권 10개 팀 등 12개 팀이 1대1로 시합을 벌여 이진 팀이 다음 경기에 진출하는 복도 방식으로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연합뉴스

■ ‘두 마리 토끼’ 쫓는 FA 대기자 ■

‘팀 우승하고’

SK 김재현·이진영
두산 홍성흔·이해천

‘몸값 올리고’

SK-두산의 프로야구 한국시리즈에서는 올해를 끝으로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는 6명이 팀의 우승과 개인의 성공이라는 두 마리 토끼 사냥에 도전 중이다.

SK에서는 지난해 한국시리즈 6차전부터 3경기 연속 홈런을 때린 ‘캐년히터’ 김재현(33)과 ‘국민 우익수’ 이진영(28), 투수 가뜰살(39)이 FA를 취득한다.

두산에서는 지명타자 홍성흔(31), 투수 이해천(29)이 FA다.

지난해 FA 자격을 얻고 해외진출을 모색했다가 두산과 1년간 9억원에 재계약한 ‘대장골’ 김동주(32)는 FA 자격 유지 선수다.

그러나 두산이 시즌 후 김동주가 일본 프로야구에 진출하면 조건 없이 뇌수기로 하면서 김동주 역시 잠재적인 FA로 볼 수 있다.

한국시리즈에서 관심을 끄는 건 대어급으로 꼽히는 김재현, 이진영, 김동주, 이해천, 홍성흔의 성격이다. 한국시리즈

두산 김동주는 일본 진출 모색
KS서 최대 기량 발휘 안간힘

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쳐 우승까지 일구면 자신의 주가는 더욱 올라가고 유리한 조건에 FA 계약을 할 수도 있다. 김동주, 이진영, 이해천은 현해탄 너머 일본 무대를 꿈꾸고 있고 김재현과 홍성흔은 팀 잔류 또는 타 팀 이적을 놓고 고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빠른 배트속도를 앞세운 파괴력이 인상적인 좌타자 김재현은 정규 시즌에서 타율 0.310을 때리고 홈런 10개에 60타점을 올리며 비룡 군단 중심 타자 노릇을 했다.

지난 27일 2차전에서 결정적인 실책 2개로 고개를 떨어뜨린 김동주는 8타수2안타에 머물고 있지만 3번 김현수가 9타수1안타 삼진 6개로 부진에 빠지면서 어

개가 무거워졌다.

104타점(타점 2위)을 올려 2000년(106타점) 이후 프로 두 번째로 시즌 100타점을 넘긴 김동주는 한국시리즈 우승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일본 진출 목표도 이뤄내겠다는 자세다.

이진영과 이해천도 장타와 호투로 팀 승리에 이바지할 작정이다.

2차전에서 1타점 적시타로 타격감을 조율한 이진영은 두산의 오른손 투수를 버리고 있다. 작년 한국시리즈에서 9타수1안타로 약했던 면모를 올리는 일신하겠다는 생각이다.

삼성과 플레이오프에서 선발과 중간을 오가며 패투, 상승세를 탄 이해천도 우리 자이언츠 등 일본프로야구 센트럴 리그 3개 구단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다.

1차전에서 홈런, 2차전에서 3루타를 때려낸 홍성흔도 정확성과 장타력을 겸비한 방망이 실력을 한국시리즈에서 뽐낼 심산이다.

/연합뉴스

월드시리즈 또 비 때문에 연기

오늘 필라델피아-탬파베이 5차전

경기 도중 내린 비로 서스펜디드(일시정지) 게임이 선언됐던 미국프로야구 월드시리즈

5차전이 또 날씨때문에 연기됐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29일(이하 한국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시티즌스 파크에서 재개될 예정이던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탬파베이 레이스 간 월드시리즈 5차전 경기를 30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28일 열린 5차전은 두 팀이 2-2로 맞선 6

회말 필라델피아의 공격을 앞두고 폭우가 쏟아져 월드시리즈 역사상 처음으로 서스펜디드 게임이 선언됐다.

메이저리그 버드 셀릭 커미셔너는 “29일 경기 시간에 비가 온다는 예보에 따라 경기 재개를 포기했다”며 “당분간 계속 날씨와 관련된 예보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필라델피아 지역은 30일에도 비오 온다는 예보가 있어 경기 속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연합뉴스

‘6연승’ 금호생명 VS ‘호화군단’ 신한은행
내일 단독 선두 놓고 격돌

황인춘·김대섭·강욱순 등
국내 상위 랭커들 2R 진출
KPGA 매치플레이 챔피언십

■ 여자프로농구

여자프로농구에서 6연승을 질주하고 있는 구리 금호생명과 호화 멤버를 자랑하는 안산 신한은행이 선두 자리를 놓고 격돌한다.

6승1패로 공동 1위를 달리는 금호생명과 신한은행이 31일 오후 4시 구리실내체육관에서 피할 수 없는 한판 대결을 벌인다.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두 팀 간 승부에서 이기는 팀은 바로 단독 1위로 올라서며 당분간 독주를 계속할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금호생명은 웅인 삼성생명과 개막전 패배 이후 내리 6연승을 달리는 상승세가 무섭다. 6연승은 지난 시즌 세웠던 종전 팀 최다 연승인 5연승을 갈아치우는 기록이다.

올 시즌 처음으로 전 구단 승리를 거두기도 한 금호생명은 첫 원정 맞대결에서 신한은

행을 꺾었던 기세를 이번에도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금호생명은 또 ‘미녀 리바운드’ 신정자와 강지숙의 골밑 위력이 갈수록 더해지고 한 체진의 외곽포도 연일 불을 뿜고 있어 자신감이 넘쳐 난다. 무릎 부상에서 회복한 정미란과 김보미, 이경은까지 전력에 큰 힘을 보태고 있는 금호생명은 지난 시즌과 비교해 내외곽 모두 탄탄해졌다는 평가다.

반면 신한은행은 설욕전을 단단히 버리고 있다.

신한은행은 금호생명에 지자 외박과 외출을 금지한 채 정신력을 가다듬었다. 이후 신한은행은 국내 최장신 센터 하은주와 포인트가드 최윤아가 부상에서 복귀, 거침 없는 4연승을 달렸다.

신한은행은 전주원과 정선민, 진미정, 강영숙 등 베테랑의 활약을 금호생명전에도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에서 7년 만에 열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 대회 첫날에는 ‘하위 랭커의 반란’은 없었다.

29일 경남 양산 에텐밸리골프장(파72·7천207야드)에서 열린 한국프로골프 SBS 코리아 투어 동부화재 프리미엄 에텐밸리 리조트 매치플레이 챔피언십 1라운드에서 상위 랭커들이 대부분 2회전에 진출했다.

시즌 2승을 올려 삼급랭킹 4위를 달리는 황인춘(34·토마토저축은행)은 64번 시드를 받아 이 대회에 출전한 무명 박은신(18)을 4홀차로 가볍게 눌러 32강에 올랐다.

시즌 2승세를 노리는 김대섭(27·삼화저축은행)도 최우석(31)에 5홀차 대승을 거뒀고 강욱순(42·안양베네스트), 하인회(21), 김위중(27·삼화저축은행) 등 올해 우승을 신고한 상위 랭커들은 32강에 이름을 올렸다.

강경남(24·삼화저축은행)과 최상호(53·카스코), 최광수(48·동아제약)도 2회전에 진출했다.

/연합뉴스